

네 곳의 성전이 헌납됨



사진 촬영: 그레그 톨, 시비 뉴스 사진 제공

일본의 두 번째 성전인 후쿠오카 성전이
지난 6월 11일 헌납되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대관장이 같은 시기에 네 곳의 성전을 헌납했다. 지난 6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일본의 후쿠오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들레이드와 멜버른, 피지의 수바에서 성전을 헌납했다. 이들 헌납식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힝클리 대관장을 수행했다.

일본 후쿠오카 성전

2000년 6월 11일에 힝클리 대관장은 섬나라 일본의 두 번째 성전인 일본 후쿠오카 성전을 헌납했다. 네 차례 헌납 모임이 열렸다.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를 통해 이렇게 간구했다. “이 위대한 나라에 사는 당신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빛이 감추어질 수 없는 언덕 위의 도시처럼 당당히 서있게 하옵소서.” 헌납식에는 당시 북아시아 지역 회장이었던 칠십인 정원

회의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가 힝클리 대관장, 홀런드 장로와 함께 참석했다.

약 3,000명 가량의 회원이 일본 남부 지방의 규슈에서의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다. 6월 1~3일에 성전 일반 공개를 할 때에는 많은 정부 관리들을 비롯한 5,000명 가량의 방문객들이 참석했다.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방문객들도 수백 명이나 되었다. 한 방문객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제 선입견을 바꾸지 않았다고 결심하고 성전 일반 공개에 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결심을 되뇌며 성전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해의 왕국실에 들어 선 순간 제 선입견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현재의 장소는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후쿠오카 회원들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규슈 지방의 초창기 집회소가 있던 자리이며 후에 선교 본부가 들어섰던 자리이다.



애들레이드 오스트레일리아 펄 스테이크, 풀햄 가든 와드의 켈마, 케리 배저 부부가 애들레이드에 새로 헌납된 성전을 방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성전은 타스마니아와 빅토리아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에 따른 미흡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피지 수바 성전 일반 공개 모임에 참석했다.

후쿠오카 성전이 완공된 시기 또한 주목할 만한데, 때마침 올하는 일본에서의 선교 사업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규슈 지방에서의 오랜 교회 회원이며 지도자인 료쇼 나카무라는 이렇게 말했다. “성전이 후쿠오카 지방에 세워진다는 발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헌납일에 후쿠오카 성전이 참으로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성전

2000년 6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성전이 헌납되었다. 핑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를 통해 이렇게 간구했다.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룩한 구세주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유, 그분과 맺은 성약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나라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날이 장막의 이편과 저편에 있는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소서.”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지역 회장단의 제1보좌와 제2보좌로 봉사하던 칠십인 정원회의 케네스 존슨장로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빅터 더 케이브 장로가 핑클리 대관장, 홀랜드 장로와 함께 헌납식에 참가했다. 네 차례 헌납 모임에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6월 3일에서 10일까지 성전 일반 공개를 할 때 50,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 갔다.

성전 건물은 애들레이드의 교회 회원들에게 그 자체로 신앙을 강화하는 경험을 갖게 해 주었다. 방송 매체를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해 다룬 여러 기사가 보도된 후 지역 사회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성전 일반 공개 전 2주 동안 라디오 및 신문을 통한 집중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쳐 일반인들에게 새 건물을 구경하도록 초청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들은 이 나라에서 교회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교회 회원은 1955년에 3,000여 명이었는데 오늘날 100,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시된 최신 인구 조사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급성장하는 기독교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성전

2000년 6월 16일, 핑클리 대관장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성전을 헌납했으며 네 차례 헌납 모임이 열렸다. 핑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를 통해 이렇게 간구했다. “지금부터 [성전]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그 문을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추천받은 사람들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 그들이 성전 문을 나설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당신의 길을 걸어 가겠다는 굳은 결

심을 하며 기쁘게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사 언제나 강하게 하시며,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평화와 진보의 나라가 되도록 하옵소서.”

힝클리 대관장, 홀랜드 장로와 함께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지역 회장이었던 칠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가 헌납식에 참석했다. 청명한 날씨가 5,000명 이상 참석한 이날 헌납식을 반겨 주었다.

새 성전은 타스마니아와 빅토리아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패커넘 스테이크의 제이 머레이 로블리 스테이크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 2,400킬로미터 떨어진 시드니 성전으로 왕복 여행을 해 왔습니다.”

피지 수바 성전

2000년 6월 18일, 힝클리 대관장이 수바 피지 성전을 헌납했다. 헌납식 모임은 이 나라의 정치적 불안을 고려하여 한번만 열렸다.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를 통해 피지의 평화를 위해 간구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섬들에 평화를 축복하시어 이 땅의 정부에 의해 주어진 위대한 예배의 자유가 줄어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알려지게 하사 주님의 사임이 주님의 포도원 중에서도 소중히 여겨진 이 곳에서 성장하고 번영하기를 간구합니다.”

헌납식에는 힝클리 대관장과 홀랜드 장로 그리고 태평양 제도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켄틴 엘 쿡 장로가 함께 참석했다.

불안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성전 일반 공개가 6월 7~10일과 12일에 계속되었는데, 대략 16,000여 명이 방문했다. 헌납식에는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는데, 피지인과 인도인 간의 정치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 둘 두 민족 출신 회원들은 사랑과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렸다.

비록 소수의 회원만이 조용하게 치러진 헌납식과 정초식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회원들의 실망이 피지에 성전을 갖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희망했다. 수바 공항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부 피지 회원들은 차를 타고 가는 힝클리 대관장을 볼 수 있었다. 한 어린 소년은 “우리는 예언자를 사랑해요.”라는 팻말을 치켜 들었다.

90세 생일을 맞은 힝클리 대관장

6월 23일,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파티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모든 좌석이 만원이었다.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과 템플 스쿼어 오케스트라도 행사에 함께 했다. 수천 송이의 꽃이 연단을 장식했다. 실내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하와이, 통가, 사모아 성도들이 보내 온 레이 꽃으로 치장한 텍시도를 입고 조명을 받으며 연단으로 들어서자 파티는 절정에 달했다.

대관장은 그날 밤 행사가 교회 대관장의 90세 생신을 기리고자 마련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그 행사는 “지역 사회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그 선물의 일환으로 그

날 행사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오페라, 찬송가, 민속 음악, 유행 음악 등을 다양한 장르에서 선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창자로 마이클과 버네사 벨럼 부부, 애리얼 바이비, 글래디스 나이트, 스탠포드 올슨, 조앤 오톨리, 로버트 피터슨, 지휘자로 로버트 시보우던, 바로 브래포드, 크레이그 제



글래디스 나이트 자매가 컨퍼런스 센터 연단에 힝클리 대관장과 함께 서서 청중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인도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기자 회견 중에 기자 및 사진사들과 함께 교회 집행부 건물을 방문하고 있다.

섭, 제럴드 오토리, 맥 윌버그, 그리고 바 이올린 독주자로 제니 옥스 베이커 등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로 환호하는 가운데 힝클리 대관장은 “이보다 더 훌륭한 음악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치하했다. 그 때 나이트 자매가 힝클리 대관장이 선 연단으로 다가가 청중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인도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21,000여 명이 다 함께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 것에 감동되어 감사를 표명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 90세까지 산 보람을 느낍니다.”

또 다른 수천 명도 거의 동시에 생일 축하곡을 불렀다. 이들은 북미와 유럽 전역의 집회소에 모여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

생일 축하 행사가 있기 전에 힝클리 대관장은 자신의 저서인 “Standing for Something”이 Publisher’s Weekly의 종교 서적 분야 베스트 셀러 상위 10권에 든다는 소식을 들었다. 랜덤하우스에서 출판된 193 쪽 분량의 이 책 속에는 힝클리 대관장의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다.

힝클리 대관장의 생일 소원: 교회의 꾸준한 발전

글: 새러 제인 위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생일 소원으로 변함없는 건강과 교회의 꾸준한 발전을 소망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90세 생일을 맞이 이틀 전인 6월 21일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교회의 과거를 돌이켜 보며 미래에 대한 중대한 예견을 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이 제게 나아가게 하신다고 믿는 대로 이 사업을 진척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같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교회 제15대 대관장은 계속해서 세계를 여행하고 모든 문화와 나라의 사람들과 이해의 가교를 세우며 리스 칼리지를 브리감 영 대학 - 아이다호라고 불리우는 4년제 대학으로 확대 개편하여 젊은 말일성도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중대한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눈에 띄게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21,000 석을 수용하는 새로운 교회 컨퍼런스 센터를 신축하고 세계 도처에 여러 성전을 짓고 하

는 것은 그 같은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을 덧붙였다.

힝클리 대관장의 생애 동안 교회는 회원의 대부분이 미국 서부에 살던 500,000 명에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11,000,000 명의 회원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수많은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워 왔다.

교회는 이러한 성장에 따른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집회소를 세워야 하고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장은 복음이 회원들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반증하는 최상의 지표이기도 하다.

교회의 역대 어떠한 대관장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게 여행하여 온 힝클리 대관장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교회의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저는 이곳에 머물기 보다는 싱가포르에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마음이 크게 고양되고 강하고 놀라운 영적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힝클리 대관장의 곁에는 부인 마조리 피 힝클리 자매가 늘 함께 하여 왔다. “아내는 제게 강한 힘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조그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힘이 되어야 하며,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63년간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함께 하여 왔으며, 슬하에 자녀 5명과 손자 25명, 그리고 증손자 26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들의 생일을 알고 있으며 저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한 재건된 나부 성전 헌납을 위해 나부로 여행할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의 부친인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는 노던 스테이크 선교부 선교부장으로 나부시 창건 100주년을 기념할 때 그곳에 있었다.

“제 부친은 당시 총관리 직원들에게 나부 성전을 재건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 후 아무런 진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으며,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자신이 90세가 될 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대관장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권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헝클리 대관장은 미래를 바라 보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더욱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는 신기술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동계 올림픽 동안 컨퍼런스 센터에서

축하 공연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는 전 세계의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단언했다. “이 시기는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시기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시기는 결코 없었습니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0년 6월 24일자

전문 직업과 간증 사이에 조화를 찾는 말일성도 과학자들

제이슨 스웬슨

사회는 흔히 과학자와 종교인이 마치 스포츠에서의 맞수나 되는 것처럼 구분한다. 순수 과학과 순수 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쪽을 택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한 전직 대학 총장은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과학계에서 존경 받는 과학자이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직한 회원인 수십 명의 남녀 과학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리조나 주립 대학 명예 교수이자 브리감 영 대학 - 하와이의 전임 총장이었던 리차드 티 우턴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대다수의 말일성도 과학자들의 생활이 과학적인 탐구와 종교적인 헌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실증했다.

우턴 형제는 1930년대 후반 뉴잉글랜드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과학 - 종교 논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 대학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자신들의 고향인 유타 주가 교회의 넘쳐나는 가르침 때문에 무지에 빠져 있다고 염려했다. 그 친구는 지성과 과학이 회복된 복음과 진정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 했다. 우턴 형제는 그 편지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얼마 후 어린 우턴 형제는 지역 신문에서 유타 주가 많은 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기사는 인구 대비 배출 과학자 수에서 유타 주가 단연 앞선다는 제하의 글이었다.

기사는 각 주에서 배출된 과학자 수를 분류한 카네기 재단 분석 결과를 기초로 쓰여졌다. 분석에 따르면 유타 주는 어떤 주보다도 인구 대비 과학자 배출 비율이 단연 뛰어났다. 우턴 형제는 유타 출신 과학자들의 상당수가 교회 회원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러한 회원들이 과학 경력을 쌓아 가면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지 아니면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지 알고자 했다.

그는 유타 출신 과학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종교적 성향을 묻는 설문지를 그들 모두에게 보냈다. 우턴 형제는 말일성도인 과학자들에게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적 사명, 표준 경전의 진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을 했다. 자신을 말일성도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압도적인 수가 종교에 대한 확신이 강하거나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년 간 발표된 잇따른 연구 결과에서 유타는 주요한 과학자 양성소로 자리 매김해 왔다. 우턴 형제도 유타 과학자에 대한 계속된 연구를 통해 말일성도 과학자 비율과 교회에 대한 그들의 헌신도가 결코 낮아지지 않았음을 밝혀 왔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유타 과학자들은 전 세대로부터 전체적으로 더욱 헌신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 분야에서 교육을 받거나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젊고 진지한 말일성도 회원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자신의 직업과 복음에 충실한 성공하는 과학자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0년 7월 8일



CD-ROM이나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교회 잡지

9월에 새로운 CD-ROM이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출시된다. 이 안에는 1971~1999년 *엔사인*, *뉴이라*, *프렌드* 지의 모든 호와 1977~1999년의 *리아호나* 영어판 모든 호가 실려있다. 현재 영어판으로만 출시되어 있는 이 CD는 복음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 훌륭한 자원이며 집회소 도서관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다.

판권 약정에 따라 CD는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재판매는 할 수 없다. 선물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개인당 10장에 한해 판매된다. 물품 번호는 50000이다.

CD는 Windows 3.1이나 상위 버전을 운영 체제로 하는 컴퓨터에서 작동한다. 매킨토시 버전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CD는 인터넷 상의 www.lds.org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잡지 데이터 베이스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CD에는 하이라이트나 북마크를 사용하거나 개인 학습 노트를 더할 수 있는 추가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지다—

비영어권 회원수가 영어권 회원수를 넘어섬

글: 제이 엠 토드

2000년 9월에 교회 회원 수에 관한 중대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통계에 따르면 복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사용하던 언어로 회복된 이후 170년 만에 비영어권 회원의 수가 영어권 회원의 수를 넘어섰다.

교회가 “은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땅 끝까지 퍼지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이룬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다. 첫번째 성과는 1996년 2월에 미국 이외 지역에 사는 회원의 수가 미국 내에 사는 회원의 수보다 많아졌던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하는 동안 몇 가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교회 정보 센터의 부장인 더블류 내리 엘킹턴은 말했다. 회원들의 사용 언어의 정의는 가족 간에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그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9월에 교회 전체 회원에 비해 영어 사용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하로 떨어져 축이 기울기 시작했다.

비영어권 회원의 수가 영어권 회원보다 많아지긴 했지만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단연 5백 5십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이다. 영어는 앞으로 20년 이상 교회에서 가장 큰 언어 그룹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스페인어는 현재 3백 3십만 명의 회원수로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언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0년 경에 현재 회원 성장 속도가 계속된다면 스페인어는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언어 그룹이 되고 영어는 두 번째가 될 것이다.

현재 영어권 및 스페인어권을 제외한 지역의 회원들은 2백 2십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 148개국 22개령에 와드와 지부가 있다는 사실은 교회 회원들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9월에 교회 회원이 천 백만 명에 이름

9월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교회 통계에 의하면 교회 회원이 천 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1997년 9월에 천만 명 이정표에 다다른 이래 삼년도 채 안된 시간에 백만 명이 더 늘어났다. 대조적으로 교회

가 세워진 이래로 백만 명의 회원을 갖기까지 117년이 걸렸다.

교회가 유대인 협회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

지난 7월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인 계보 협회 국제 연합에 유대인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집행 책임자인 리처드 이 탈리 주니어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유대인 계보 협회 국제 연합 20차 연례 대회 기간 중에 기대치 못했던 선물을 선사했다.

유대인 데이터베이스를 편찬한 가족 역사 선교사 낸시 굿스타인은 그 발표가 났을 때의 정황을 이렇게 전한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그토록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전달된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가족 역사 도서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유대인 기록 색인 목록이다. 대회 공동 의장인 샬리 앤 앤더슨은 유대인의 가계를 찾는 일은 너무도 힘겨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리저리 쫓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달아나야 했습니다. 기록들을 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색인 목록은 유대인들이 특정 부류 및 지역의 조상들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굿스타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분류하고 찾는 일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합니다.”

성명 제출자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유대인 데이터베이스를 콤팩트 디스크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인천 스테이크 답동 와드



1. 서문

답동은 인천 시의 작은 법정동이며 교회는 동의 끝자락이면서도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또한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많아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답동 와드 입구에는 양쪽으로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과 넓은 잔디밭이 있으며, 확 트인 넓은 운동장은 자동차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을 만큼 넓다. 수십 년 된 느티나무, 봄이면 꽃을 피우는 벚나무, 운동장 한쪽에 서있는 120년 된 은행나무가 답동 와드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2. 답동 와드의 역사

1967년 1월 17일 선교사 이정현 장로와 스펜서 장로가 인천 중구 인현동 20번지 허채 형제 집에서 첫 예배를 함으로써 답동 와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의 건물을 임대한 후 선교사 장병훈 장로가 지역장으로 봉사하다가 1969년 7월 13일 허채 형제가 초대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1970년 10월 15일 교회를 인천 중구 중앙동으로 이전하여 이용상 형제가 2대 지부장으로 봉사했다. 이때 상호향상회(지금의 독신 성인 모임) 회원인 백준옥, 최상혁, 최수영, 최정주 형제와 허옥자 자매 등이 있어 독신 성인들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인하 대학교에는 20여 명이나 되는 물론 서클이 있었으며 서 지방부 안에서 인

천 지부의 명성이 높아진 때이기도 했다.

그러한 발전의 시기를 거쳐 1973년 4월 20일, 인천 중구 답동 2번지 구 정보부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답동 와드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후 같은 해인 1973년 5월 20일 경기 지방부 발족으로 이용상 형제가 초대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 인천 지부에서 동 인천 지부와 부평 지부를 탄생 시켰으며 경기 지방부에는 수원 지부를 속하게 하였고 후에 안양, 화곡, 원주 지부를 속하게 하여 3개월마다 지방부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후 1977년 3월 20일 인천 지부는 와드로 승격하기 위해 동 인천 지부와 부평 지부를 통합하여 연합 지부를 만들고 그 동안 지부장으로 봉사하던 세 형제가 지부장단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전기가 펼쳐졌다. 그 당시 예배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보았다.

그해 5월 22일 이회 여고 유원순 기념관에서 서울 시 스테이크가 발족하면서 인천 지부는 인천 와드로 승격하여 서 스테이크에 소속되었다. 초대 감독으로 허채 형제, 보좌로 신종만 형제와 배광식 형제가 봉사했다. 감독단은 대제사 신권에 성임 되었으며 다시 한번 도약의 장이 열리게 되어 많은 와드와 지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많은 사연과 발전을 거듭하여 1979년 4월 1일 인천 와드는 남 인천 지부와 동 인천 와드를 탄생시켰으며 1981년 11월

이광준 형제의 가족과 방계 친족



명문 가정에 대한 소개가 나간 후 많은 반응을 보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명문 가정은 세상적인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가족과 일가 친척 중에서 교회 회원이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기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1. 과일 나무 한 그루

지난 9월 8일 이광준 형제의 모친인 유옥님 자매의 열 아홉 번째 손자녀가 태어났다. 이로써 유옥님 자매 슬하 5남매 부부 10명, 그리고 손자녀 19명 등 모두 30명의 대가족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이 대가족이 모두 교회의 회원인 것이다. 가족 중 주일에 근무해야 하는 이 형제의 매제 한 사람과 군에 가 있는 조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장남인 이광준 형제와 그의 네 여동생의 남편들 모두 대신권 소유자이다. 또한 이광준 형제의 가족의 소망은 19명의 자녀와 조카들이 모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이 가족은 말일성도 가정으로서 보기 좋은 한 그루 과일 나무와 같다.

2.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972년 9월 어느 날 오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광준 형제는 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문밖에는 벽안의 두 젊은이가 서 있었다. 그들은 서툰 한국말로 종교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웠지만 이 형제는 소개 내용을 들어 주었다. 그 두 선교사는 이야기를 끝내면서 교회 약도가 있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오는 일요일 10시까지 오겠느냐고 물었다. 이 형제는 내심 어서 빨리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 당시 그는 가까운 장로 교회에 나가고 있던 중이었고 그의 외가는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미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을 생각하니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약속은 지키되 그 날만 간다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다. 그 당시 아침에는 주일학교를

했는데 참석하고 보니 분위기가 아주 포근했고 회원들의 친절함이 인상 깊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저녁에 하는 성찬식이 있으니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그날 저녁 성찬식에도 참석해 보았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해 10월 7일 선교사 숙소의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곳은 당시 광주 지방부 광주 지부였고, 이 형제는 그때 따뜻하게 영접하여 주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

3. 온 가족이 침례의 물가로

이광준 형제는 침례 받은 다음 해인 1973년 군 입대하기 전, 막내 동생인 이순덕 자매를 침례 주었다. 입대한 뒤 곧 이어서 둘째 이봉희 자매와 셋째 이봉덕 자매가 침례를 받았다. 그들의 모범으로 서울에 있던 이 형제의 첫째 동생 이순자 자매도 침례를 받았으며, 제대 후에는 모친인 유옥님 자매가 침례를 받았다. 부친은 침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나 대리 침례 후 온 가족이 인봉을 받았다. 유옥님 자매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전혀 몰랐지만 몰몬경을 읽기 위해, 그리고 선교 사업을 나간 이들과 딸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여 지금은 가족 중에서 몰몬경을 가장 많이 읽고 있으며 성전 선교사로 봉사했고 지금은 성전 봉사자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4.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제대 후 늦은 나이에 공부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이광준 형제는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 받아 대기하면서 결혼할 자매를 찾던 중, 청년 대회에서 본 적이 있는 정정숙 자매를 동생 이봉희 자매로부터 소개 받았다. 정정숙 자매는 그 당시 선교사로

11



개인 발전 기록부 — 청년의 사명을 수행함

청년은 의로운 여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하도록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 지금은 평범한 시기가 아니며 또한, 자매들도 평범한 여성이 아니다. 청년로서 생활하는 몇 년 동안 거룩하고 신성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은사와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신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이 말일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스러운 사명을 위해 준비하며, 타고난 부드러운 마음씨와 사랑과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향상시키며, 의로운 영향력으로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주님의 사업에는 모든 청년들이 매우 필요하며, 그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실천하길 바라므로 청년들은 거룩한 성품과 여성다운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녀들은 기도와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며 계명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성전 의식을 받고 궁극적으로 승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개인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선정하는 활동과 계획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고, 여러분의 성스러운 잠재력을 찾아내서 그것을 신장시키고 발전시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의로운 청년으로서 자신의 무한한 가치 및 거룩한 사명을 깨닫도록 해 줄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청년 주제, 모토, 가치관과 개인적인 합당성에 대한 표준을 알아본다.

청녀 주제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해아림을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할진대’ 다음의 청년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한다. 신앙, 거룩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및 성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모사이야서 18:9 참조)이다.

청녀 모토는 “진리와 의를 위해 나아가자” 이고, 청년 가치관은 첫째, 신앙(교리와 성약 14:7, 흰색), 둘째, 거룩한 성품(베드로후서 1:4~7, 파란색), 셋째, 개인적인 가치(교리와 성약 18:10, 빨간색), 넷째, 지식(교리와 성약 88:118, 초록색), 다섯째, 선택과 책임(여호수아 24:15, 주황색), 여섯째, 선행(니파이삼서 12:16, 노란색), 일곱째, 성실(욥기 27:5, 자주색), 이렇게 일곱 가지의 가

치관과 참조 성구 그리고 색깔을 가지고 있다.

꿀벌반은 진리의 청년 표창, 장미반은 약속의 청년 표창, 월계반은 신앙의 청년 표창을 받고, 꿀벌반, 장미반, 월계반에서 각각 2년 동안 모든 책임을 완수하면 청년 표창 증서를 받고, 청년 메달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완수하면 주어지는 것이 청년 표창이다. 청년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합당성에 대한 표준이 있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기적인 경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감을 알게 된다. 또한, 개인 일지를 기록함으로써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발전을 보는 즐거움을 갖게 되고, 청년 가치관과 관련된 여러 경험을 하면서 평생 동안 계속

개인적인 합당성에 대한 표준

1. 나는 정기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한다.
2. 나는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는다.
3. 나는 영의 인도를 구한다.
4. 나는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5. 나는 자해의 말씀을 지키며 담배, 술, 커피, 흥차, 해로운 약물(환각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6. 나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서 정직하다.
7. 나는 십일조와 헌금을 바친다.
8. 나는 금식의 법을 실천한다.
9. 나는 신권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10. 나는 국가의 법을 지킨다.
11. 나는 회개와 용서의 원리를 적용한다.
12. 나는 가족 생활을 보다 향상시킨다.
13. 나는 욕설, 험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및 불결한 말을 삼가한다.
14. 나는 부도덕하고 외설적인 모든 자료와 오락을 피한다.
15. 나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 및 외모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범을 보인다.
16. 나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17. 나는 경험을 통해 일의 축복과 봉사의 기쁨을 배운다.

남아 있을 습관을 형성하고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청녀만의 축복

1994년 봄 저는 큰 기대를 안고 청녀회 교실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떠난다는 섭섭함보다는 청녀로 진급하여 언니들과 함께 공과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청녀 회장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바로 '개인 발전 기록부'였습니다. 그 순간 좋아만 보였던 청녀회 시간이 어찌나 싫어지던지...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숙제를 바라만 보면서 한 주 한 주 지나갔고, 끝벌반 1과정을 마치지도 못한 채 2년이 지나 장미반이 되었습니다. 장미반이 되면서 저는 제가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에 소홀하게 될 것 같아, 이를 위해 세미나리와 더불어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와 세미나리, 개인 발전 기록부 이 3가지를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해 말 저는 제가 희망했던 학교에도 진학 할 수 있었고, 세미나리 1년 과정도 마쳤으며, 무엇보다도 개인 발전 기록부 끝벌반 1, 2과정을 끝내고 진리의 청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청녀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제 자신이 크게 발전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개인 발전 기록부를 꾸준히 해 나가길 바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청녀, 신앙의 청녀 과정을 거쳐 청녀 메달을 받기까지 때로는 개인 발전 기록부 대로 생활하는 것을 잊기도 하고 각 항목들을 실천하기가 힘들었고 그 때마다 저는 제 책상 앞의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남은 3년의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발전 기록부대로 생활하려고 애쓰면서, 인내심과 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그로 인해 꾸준히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때 생긴 간증은 저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으며 개인 발전 기록부는 제가 원하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축복과 제가 받아 온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인 청녀 메달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훌륭한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 또 회복된 복음을 알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 안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 제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참되며 물몬경은 참된 경전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서울 동 스테이크 수유 와드 최정 자매)

광주 스테이크



노년의 모임

지난 9월 24일 광주 스테이크는 홍병식 전 대전 선교부장과 함께 하는 노년의 모임을 개최했다. 홍병식 부장은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 힘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현 사회에서 성도들의 책임 또한 증가함을 강조했다. 또한 선교 사업의 기간은 희생이 아니고 그 이상의 축복을 위한 투자이며,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박정자)

교육의 날

지난 8월 26일 스테이크 센터에서 종교 교육원 주최로 교육의 날 행사가 있었다. 이 모임에서 정신과 의사인 정한 형제는 "복음과 정신 건강"이라는 주제로 말씀하면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축복과 평안이 크다고 했으며 김종열 장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기도하면 구체적인 응답이 옵니다. 복음에 대해 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홍세라)

부산 스테이크

교육의 날 행사

지난 9월 17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부산 종교 교육원 주최로 고원용 장로와 박병규 교육 기구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교육의 날 행사가 있었다. 말씀에 앞서 부산 스테이크 청녀 중창단과 기악 연주팀에서 "나 어릴 적 주님을 찾으리"와 "어린이의 기도"를 불러 주었으며 말씀 순서로 박병규 교육 기구 대표는 신앙 생활에도 거센 태풍이 몰아쳐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때로 거짓 교리나 가르침이 그 태풍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태풍을 이

거내기 위해 첫째,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고 둘째, 영의 은사(교리와 성약 46:13~26)를 통해 분별하며 셋째, 경전에 있는 복음 원리를 통해 구별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서 고원용 장로는 "경전을 상고함"에 관해 말씀하면서 열심히 경전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깨닫도록 간구할 것을 전했고 말일성도로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모든 교회 모임에 적극 참석할 것을 권고했다.

독신 성인 노변의 모임

"여러분의 합당한 결혼이 스테이크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나의 결혼관"이라는 주제로 열린 노변의 모임에서 정용환 고등평의원이 한 말씀이다. 지난 9월 24일 온천 와드에서 독신 형제 자매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모임에서는 각 와드에서 청년 대표가 나와 각자의 개인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온천 와드의 김성민 형제는 이성적인 기준과 감성적인 느낌으로 반려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표준을 갖고 선택하는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대 연사인 이영미 자매는 선입관을 없애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라고 권고했고, 김은희 자매는 행복한 결혼의 씨앗은 젊을 때 뿌려진다고 하며 지금 모든 것을 살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이희숙)

서울 스테이크

합창 대회

지난 9월 2일(토) 오후 6시에 스테이크 센터인 신당 와드에서 합창 대회가 열렸다. 성동, 신당, 청운, 화양 등 4개 와드가 참가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특별 순서로 마련된 화양 와드 김만호 형제의 판소리 한 대목과 청운 와드 이정민 자매의 피리 연주는 우리 음악의 신명나는 가락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중임 농아 지부의 형제, 자매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부른 수화 합창은 곳곳에서 흐뭇한 미소와 눈물을 자아냈다. 이날 최우수상은 "내 구주 살아 계시다"의 청운 와드, 우수상은 성동 와드에 돌아갔다.(박세리)

서울 북 스테이크

추향초 자매 신지식인 선정

지난 7월 18일 대통령 자문 기구 제2의 건국 범 국민 추진 위



원회가 후원하고 사단 법인 한국 직능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신지식인 직능 대회에서 한국 음식업 요리 분야에서 국내 최초 신지식인으로 성산 와드 추향초 자매가 선정되었다. 추향초 자매는 20여 년간 요리 분야 연구에 힘써 왔으며 특히 황해도 전통 음식 요리에 조예가 깊다. 가족으로는 성산 와드

감독단으로 봉사하는 이영복 형제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풍년명절"이라는 황해도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김규호)

서울 선교부 선교사들

주인 없는 묘 벌초



지난 9월 4일(월)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 선교부 선교사 23명과 서울 북 스테이크 조규영 형제가 함께 벽제에 있는 서울 시립 공원 묘지에서 주인 없는 묘들을 벌초하는 특별한 봉사 활동을 했다. 선교사들은 주인 없는 묘를 정성껏 벌초하면서 한국인의 조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외국 선교사가 하는 것을 보고 환영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조규영)

인천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

지난 8월 27일(일) 돌아오는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11월 4일~5일)의 영적인 준비를 위하여 2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물론경을 주제로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의 초청 연사로는 인천 스테

이크 회원이었으며 현재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치과의를 하고 있는 노봉구 형제와 서울 동 종교 교육원의 조만구 형제가 참석했다.

노봉구 형제는 학업을 하는 동안 물몬경을 읽음으로써 받았던 축복과 치과의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조만구 형제는 물몬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다.(이희범)

종교 교육원

서울 동 종교 교육원 개강식

지난 9월 2일(토) 오후 6시 30분 서울 동 종교 교육원장인 서희철 형제의 감리하에 2학기 개강식이 열렸다. 말씀 순서에서 서희철 형제는 “주님께서는 말일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오랫동안 아주 특별한 영을 남겨 두셨는데, 그들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라고 하며 “또한 그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수강 카드를 작성하고,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열의와 자세를 점검해 보았다. 이 모임에서 학생회가 특별 찬송을 부르고 송원상, 구웅모 형제가 각각 간증했다.(박세리)

중부 종교 교육원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번 중부 종교 교육원 대학부 2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른 새벽에 종교 교육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 물몬경 시간, 복음 비디오 감상반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많은 형제, 자매들은 경전과 더불어 수업에 참여하면서 좀더 여유롭고 넉넉한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다고 간증했다. (박미영)

간증

내 영혼을 변화시킨 사랑의 메시지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이해순 자매

비회원과 결혼한 이후에 나는 오랫동안 교회 밖에서 생활하며 그동안 배운 복음에 대해 서서히 잊고 있었다. 경전을 읽지도 않게 되었으며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도 잊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불행했고, 나의 얼굴은 어두운 그늘로 뒤덮여 힘겨운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 마음이 내킬 때 교회에 가면 눈물을 닦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내가 복음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곤 했으나, 다시 교회에 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어느 날부터 우리 집에 복음 선교사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랑과 염려에 찬 눈으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질문했고, 함께 경전도 읽고, 기도를 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방문했지만 그래도 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 대신 선교부장의 아내인 와델 자매가 우리 집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분을 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속

으로 웃었다. 그 분은 2년 동안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그 동안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었고, 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며 함께 울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었다. 너무 오랫동안 저활동이었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생활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매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으로 너희를 치지 않게 하고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건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9:15~16)는 말씀을 읽으며 ‘회개’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선교사들과 와델 자매님의 방문을 받으며 나는 그들이 내게 준 사랑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내 영혼에 가득 차기 시작하

는 것을 느꼈고, 어두운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졌으며, 드디어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남편의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하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싫어하던 그들의 시선이 따뜻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교회에서 유아반 교실이 지저분하게 느껴져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곧 화장실도 청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도 청소를 하러 교회에 갔다. 그 동안 거의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던 중 청소를 하러 갔던 유아반에서 종교 교육원의 정 태걸 형제님이 가르치시는 교리와 성약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잠시 후에 내 눈엔 눈물이 가득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지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는데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의 문도 두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에게 복음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와 그의 가족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사랑을 보이려고 노력한 결과,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일요일에 실 수 있어서 가족들과 교회에 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현재는 복음 토론을 시작하여 바쁜 시간에도 틈을 내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무지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아이들과 손잡고 기도도 하며 가끔 출근하는 남편 손을 잡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한다. 지금 내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하며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처럼 교회 밖에서 어두운 인생을 헤매는 저활동 회원이 있다면 나는 그 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싶다. "하나님께서서는 너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행복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을 찾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요셉 스미스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권고드립니다." 교리와 성약 29편 6절에 "신앙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슬픔으로 가득한 분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온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는 곳에는 결코 불행한 인생이 기다리지 않음을 저활동인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다. 나는 온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임을 간증드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35기 5명



도상석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대전 선교부



도상섭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서울 선교부



이선영
대구 스테이크
영천 지부
서울 선교부



정현진
마산 스테이크
경화 와드
대전 선교부



최원식
강서 스테이크
발산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변경

대구 스테이크

영천 지부 지부장: 박재성 (전임자: 원종현)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감독: 최일광 (전임자: 이형근)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감독: 김동완 (전임자: 전우식)

서울 영동 스테이크

신장 지부가 하남 지부로 명칭이 변경됨
하남 지부 지부장: 최정식 (전임자: 이웅범)

안양 스테이크

시흥 와드 감독: 심상문 (전임자: 한상선)